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요인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교과과정 적합도 분석*

정 환 호** · 최 진 호***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대학 재학생(N=201)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음악을 대학전공으로 선택한 이유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음악대학의 교과과정과 졸업 후 진로와의 적합도를 조사하여, 음악대학과 음악전공자들에게 교과과정 개발 및 졸업 후 진로지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음악전공 대학생들은 *음악이 좋아서(흥미)*, *타고난 음악적 재능* 등의 내적요인들에 의해 음악을 대학전공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과 진로의 보장*, *수입의 보장* 등 현실적 직업요인들은 음악을 대학전공으로 선택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악전공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음악대학 교과과정 적합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공 선택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취업과 진로의 문제점을 점차 인식해 나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문연주자를 예상 진로라고 밝힌 학생들의 교과과정 적합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나 음악대학의 교과과정을 졸업 후 진로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음악대학전공, 교과과정, 음악교육, 진로와 취업

차 례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 | | |
|--------------|------------|
| 1. 연구대상 및 절차 | 2. 연구의 제한점 |
| 3. 검사도구 | 4. 결과분석 |

IV. 연구 결과

V. 결론 및 제언

* 이 논문은 2013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전공강의전담교수/교신저자(jhc0028@cau.ac.kr)

I.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청년층의 진로와 취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만큼 중요한 국가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대학 평가에서도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대학들도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의 진로와 취업이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서부터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임을 의미한다(박용두, 2012; Herr & Cramer, 1996).

진로와 취업의 문제는 음악을 전공하고 졸업하는 음악대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통계연구센터(2012)에 따르면 2012년도에 졸업한 국내 음악 전공자들은 5547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21%만 취업하였고, 15%는 국내 및 국외대학원으로 진학하였으며, 졸업생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머지 약 64%는 통계상 취업이 아닌 ‘기타’의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어, 음악전공생들의 취업률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음악 전공자의 진로 문제는 음악대학이 설립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것으로써 위에 제시한 교육통계상 다른 전공과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이다.

이러한 음악대학의 구조적 문제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실제로 최시원(1983)은 이와 관련한 문헌에서 한 해 오천여명이 넘는 음악대학 졸업생 중 극히 적은 숫자가 연주자로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대학의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이 실제로 무대에 설 수 있는 소수의 성공적인 연주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완규, 권수미(2008)에 의하면, 음악전공자의 진로 문제의 본질은 대다수 대학의 교과과정이 실연 위주의 연주자 양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음악현장에서 연주자 영역은 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대학이 계속해서 연주자만을 배출하여 음악전공자들의 진로 다양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다

시 말하면, 이러한 현실에서 음악대학이 연주자 양성과 더불어 졸업생이 다양한 방향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재조정하고, 음악대학생들에게 졸업 후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완규 · 최진호, 2009).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대학생들을 대상(n=201)으로 본인들이 음악을 대학전공으로 선택한 이유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음악대학의 교과과정과 졸업 후 진로와의 적합도를 조사하여, 음악대학과 음악전공자들에게 교과과정 개발 및 졸업 후 진로지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음악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전공 선택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음악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음악대학의 교과과정과 졸업 후 진로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음악대학생들의 전공과 진로 선택요인

하빅허스트(Havighurst, 1972)는 진로에 대한 결정과 준비가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라고 보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올바른 진로 선택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청소년기에 형성된 개인의 진로성향은 대학의 전공 선택과 진학한 이후의 평생진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결과들에서 대학시절은 학교 교육을 마치고 직업사회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졸업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습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Mortimer, Zimmer-Gembeck, Holmes & Shanahan, 2002; Paul, 2010; 박용도, 2012).

진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진로란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의사결정으로 직업적 삶속에서 일생동안 경험하는 일의 총체를 의미한다(Herr & Cramer, 1996). 다시 말하면, 개인은 진로를 설정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에서의 직업 선택을 위한 지식과 태도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음악대학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실제적 진로 연구의 첫 단계는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의사 결정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진로를 둘러싼 내/외부적 요인에 관한 이해가 가능하다. 진로에 대한 이론의 방향은 매우 다양하나 주요한 패러다임 중 하나는 진로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과정으로 간주하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이다(Lent & Hackett, 1994). 반두라(Bandura, 1986)는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해 흥미의 발달, 진로의 선택, 진로의 수행이라는 세 가지 모형을 통해 진로발달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진로 선택은 ‘개인의 상태’로부터 출발하며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진로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이정애 · 최웅용, 2010). 다시 말하면, 진로 선택에는 한 가지 요인보다는 당시 개인이 처해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진로의사결정이론의 연구자인 톨버트(Tolbert, 1980)는 진로 선택이 자신의 능력과 흥미, 가치관과 경제적 여건, 부모의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행위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음악을 대학의 전공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많은 음악전공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부모와 교사의 영향, 자기의 음악적 재능에 대한 확신, 음악에 대한 흥미와 경험 등이 주요한 선택요인으로 나타났다(Gilbert, 1994; Shelter, 1985; Holloway, 1984; 최진호, 정완규 2009).

한편, 음악전공 내에서도 세부적인 전공의 차이에 따라 전공 선택 동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크게 음악교육 전공과 연주 전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음악교육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 그리고 ‘음악을 나누는 것이 좋아서’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졸업 후 직업을 선택하기에도 연주전공에 비해 용이하기 때문에 음악교육을 전공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illespie & Hamann, 1999;

Hellman, 2008; Thornton & Bergee, 2008). 실제로 미국 7개 대학에서 음악 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존스와 파커스(Jones & Parkes, 2010)는 학생들이 음악교육을 전공으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가르친다는 것이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흥미롭게도 가르치는 능력은 연주하는 능력과는 별개로 형성된 요인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주를 전공하는 음악대학 학생들의 전공 선택 요인을 밝힌 파커스와 존스(Parkes & Jones, 2011)의 연구에서는 음악적 즐거움, 능력, 실용성, 정체성의 네 개의 요인 중 ‘학생들 스스로 음악을 즐기는 것’을 가장 큰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음악교육이건, 연주이건 전공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가 전공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음악 대학생들이 음악을 전공으로 선택한 요인들은 음악에 대한 적성과 재능 그리고 흥미 등 외부 환경과 관련 없는 개인의 내적요인과 부모의 영향, 교사의 영향, 롤 모델의 영향, 음악적 경험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안정된 수입과 취업 등 음악전공의 직업적 특성과 관련한 요인들이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과과정의 진로 적합도와 진로의 선택

대학생에게 있어서 대학시절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진로선택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전공 선택 요인은 대학 입학 이전에 결정된 행동으로써, 이는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졸업 후 진로 선택과는 독립된 개념이다. 따라서 대학 시기의 진로선택은 대학 졸업 후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선택하는 진로는 능력발휘의 기회여부, 대인 관계의 유형,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 가치관과 태도, 정신 및 신체건강, 가족 간의 관계 등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Tolbert, 1980; 이재창, 2005; 한선숙, 2009). 특히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르면 진로 선택과 목표 추구활동은 사회적지지 또는 장벽과 같은 환경적 변인에 의해 조절이 가능하며, 이는 선택된 진로라 하더라도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정애 · 최웅용, 2010). 이러한 사실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획일화된 교과과정정보다는 다양한 방향의 진로를 탐색하고 모색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음악대학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교과과정과 진로에 관련된 문헌들 중 전국의 대학생 800명을 모집단으로 연구한 ‘한국대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이대용 외, 2011)에 의하면, 예술계열 학생 중 80%가 넘는 학생들이 전공 관련 진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음악대학 학생들을 사회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한주연(2012)의 연구에서도 졸업생의 80%가 넘는 학생들이 음악 관련 진로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악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른 계열 졸업생들의 전공 일치도가 50%를 넘지 않는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높은 전공과 진로의 일치 수준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중 64%가 전공 변경을 희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다른 진로를 선택한 나머지 20% 학생들에 비해 다수인 80%학생들의 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예술계열 학생들은 진로 준비에 있어서 타 계열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전공실기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고, 전공과 다른 진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전공에 관한 전문성이 타 전공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음악 전공에 적용하면, 음악대학의 교과과정이 연주 위주의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어 음악 전공생들이 다른 전공에 비해 다양한 진로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공 변경에 대한 가능성도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음악전공생들이 처해있는 진로 관련 문제를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 해 배출되는 음악인구의 수가 포화 상태를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연주자의 길을 걷는 소수 인구를 제외한 나머지 음악 전공자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며 현재 음악을 전공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졸업생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제한된 직업군으로는 과다 경쟁을 유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연주위주의 교육을 받은 대다수 학생들은 연주가 아닌 다른 분야를 진로로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진로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관련 직무의 훈련이 되어있지 않아 진로 준비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둘째는 산업 내 직무 불일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음악 산업은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산업은 숙련된 인력을 찾기가 어렵고, 음악 전공자 역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직무 불일치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연주나 교육 중심의 한 제한된 진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악대학 졸업 후 실연이 아닌 타 분야에는 입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더욱이 콘텐츠로써의 음악 생산 능력, 즉 프로듀싱 능력이 없는 일반 음악대학 졸업생의 경우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에 비해 직업적 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학에서의 직업진로교육은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및 외부 환경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전공 분야에 적합한 진로정보활동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관점이다(이대용·류동희, 2011). 즉, 대학은 학생들이 재학 중에 본인의 전공분야에 알맞은 직업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로 이론 중 하나인 해런(Harren, 1979)의 진로의사결정 모델에서는 개인의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이 명확할 때에 전공에 대한 목적의식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 문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로의 주체가 되는 학생들의 생각과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며, 진로와 관련한 외부 상황을 분석하여 진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공을 불문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음악 전공자의 진로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 교육체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대부분 단편적인 비판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박종문, 1990; 조선우·김원명, 1999; 이가원, 2009), 음악의 경우에도 실제적인 음악전공자들의 직업과 진로 선택을 밝힌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편이다(최진호·정완규, 2009).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대학생들을 대상(n=201)으로 본인들이 음악을 대학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

와 현재 공부하고 있는 대학의 교과과정과 졸업 후 진로와의 적합도를 조사하여, 음악대학과 음악전공자들에게 교과과정개발 및 졸업 후 진로지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C, D, E, K, 4개 대학의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201명(n=201)의 음악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음악을 대학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와 현재 재학하고 있는 음악대학의 교과과정이 졸업 후 진로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조사하였다. 특히 연구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질적·양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고 상호보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병렬적/동시적 통합방법설계(Simultaneous Mixed Methods Design)” (성태제, 2010, p.35)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지원자 표집방법(Volunteer Sampling)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지원자 표집 방법은 “연구 참여를 거부하는 연구대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법적, 윤리적 문제 때문에 연구대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구” (성태제, 2003, p. 105)인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 먼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연구에 참여를 허락해 준 4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앞둔 음악전공 학생 250여명에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응답하지 않은 인원과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01명(n=201)의 설문응답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먼저 연구 참가자의 특성을 분석하면, 남자가 64명(31.8%), 여자가 137명(68%)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두 배 이상 많았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54명(27%), 2학년 37명(18%), 3학년 48명(24%), 4학년 62명(31%)으로 졸업을 앞둔 4학년 참가자가 가장 많았다. 전공별로는 피아노 전공이 86명(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곡 59명(29%), 성악 35명(17%), 관현악 21명(10%)순이었다. 전공을 시작한 시기는 17세와 18세가 각각 44명(21%), 40명(19%)으로 가장 많았으며 15세부터 18세 사이에 126명(62%)의 학생들이 전공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별 평균 시작 연령은 네 개의 전공 중 피아노 전공이 평균 14.5세($SD=3.10$; $Range=6-19$)로 가장 낮았으며 성악 전공이 평균 17.6세($SD=1.98$; $Range=12-2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와 관련하여 교내·외 경력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경험 및 이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89%($n=179$)의 학생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모집단은 음악관련 학과가 설치된 전국 대학의 음악 전공생이 대상이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서울 소재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둘째, 본 연구 집단으로 선정된 4개 대학의 재학생 중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견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를 수도 있다.

3. 검사도구(Questionnaire)

본 연구의 검사도구인 Music Career Choice & Curriculum Applicability Inventory (MCCCAI)는 총 3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음악대학생들이 음악을 전공으로 선택한 동기를 묻는 10개의 문항과 졸업 후 예상하는 진로에 관한 7개의 문항, 그리고 졸업 후 예상 진로에 대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음악대학 교과과정의 적합성에 관한 10개의 문항 등 총 27개의 문항으로 5단계 Likert 척도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를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제작되었다. 먼저 전공 선택 동기를 묻는 10개의 문항은 앞서

다루었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내적 요인에 관한 2개의 문항(최진호·정완규, 2009; Gillespie & Harmann, 1999)과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된 4개의 문항(Gilbert, 1994; Mathombela, 1997, Shelter, 1985, Holloway, 1984) 그리고 직업 환경과 관련한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의 교과과정 적합도를 묻는 항목에는 서울 소재 7개 대학의 교과과정(2012년 기준)을 분석하여 공통 교과목 7과목 및 전공별 3과목을 선별하여 10개의 문항으로 제작하였으며 진로 관련 사항을 묻는 항목에는 최진호와 정완규(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희망 진로 및 예상 진로를 토대로 구성된 7문항이 포함되었다.

설문지의 두 번째 부분은 음악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음악대학 교과과정의 적합도에 관한 것으로 (1) 현재 재학 중인 음악대학의 교과과정이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2) 현재 재학 중인 음악대학에 진로와 관련하여 바라는 사항; (3) 앞으로 새롭게 개설되었으면 하는 과목 등 3개의 서술형(Open-ended)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설문지의 마지막 부분은 현재 나이와 학년, 전공 등 개인적 배경에 관한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검사지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사를 위해 3명의 전문가를 통해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Check)를 측정하였으며, 음악대학 재학생 5명을 대상으로 필드테스트 시행하여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지를 보완하였다. 이후 18명의 음악 대학생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내적일관성신뢰도($\alpha=.84$)가 확립되어 음악대학생들의 전공선택요인 및 교과과정적합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과분석(Data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음악대학생들의 전공선택요인과 교과과정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PASW Statistics 17.0(SPSS 17.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검사도구인 Music Career Choice & Curriculum Applicability Inventory (MCCCAI)의 첫 번째 부분은 음악대학생들의 전공선택요인 10개 문항과 졸업 후 예상하는 진로에 관한 7개의 문항, 그리고

졸업 후 예상 진로에 대한 현재 음악대학의 교과과정의 적합도에 관한 10개의 문항 등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제작되었기에, 각 요인들에 대한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범위(Range) 등의 서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음악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교과과정이 진로설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교과과정에 관해 음악대학에 바라는 사항, 그리고 새롭게 개설되었으면 하는 과목 등을 직접 서술하도록 세 개의 주관식 질문들로 구성되었기에, 여기서 모아진 질적 자료들은 질적 연구 분석방법의 하나인 코딩(Coding Segments) 작업을 거쳐 각 참가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후, 비슷한 카테고리 분류하고 정리(Grouping Category Segments)하여 앞서 측정한 양적자료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배경에 관한 7개 질문 중, 2개의 주관식 질문인 현재 연령과 음악교육을 시작한 나이는 등간척도(Interval Level) 수준이어서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범위로 측정/분석하였고, 나머지 5개의 객관식 문제들은 빈도수(Frequency)를 측정하여 백분율(%)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다음의 <표 1>은 음악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영향을 준 요인들에 대한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높은 순서대로 나타낸 것으로 평균의 범위(Range)는 1.88에서 4.34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음악이 좋아서(M=4.34; SD=0.79), 타고난 음악적 재능(M=4.03; SD=0.99), 전공의 직업적 특성(프리랜서)(M=3.71; SD=1.15)순으로 전공 선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소로 나타난 반면, 취업과 진로의 보장(M=1.96; SD=1.04), 수입의 보장(M=1.88; SD=0.93), 친구의 영향(M=1.68; SD=0.96)등은 가장 적게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요인 분석(양적응답분석)

선택요인(Factor)	평균(Mean)	표준편차(SD)
음악이 좋아서(흥미)	4.34	0.79
타고난 음악적 재능	4.03	0.99
전공의 직업적 특성(프리랜서)	3.71	1.15
존경하는 역할모델 (Role Model)	3.21	1.30
전공의 발전가능성	2.94	1.18
선생님의 영향	2.71	1.25
부모님의 영향	2.41	1.27
취업과 진로의 보장	1.96	1.04
수입의 보장	1.88	0.93
친구의 영향	1.68	0.96

다음의 <표 2>는 음악 대학 재학생들이 생각하는 현행 교과과정의 과목별 교과과정적합도를 나타낸 것으로, 본인의 진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과목들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높은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연구 결과 공통 과목 중에서는 전공실기(M=4.48; SD=0.80)와 연주(M=4.46; 0.80)의 진로 적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음악사(M=3.51; SD=1.10)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작곡전공의 관현악법(M=4.30; SD=0.91), 피아노 전공의 피아노 교수법(M=3.89; SD=1.04), 성악 전공의 디션(M=4.45; SD=0.85), 관현악 전공의 합주(M=4.66; SD=0.79)가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며 진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과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과목별 교과과정적합도

구분	과목(Subject)	평균(Mean)	표준편차(SD)
공통	전공실기	4.48	0.80
	연주	4.46	0.80
	전공문헌	3.91	1.06
	시창·청음	3.79	1.12
	화성학	3.78	1.15
	음악분석	3.71	1.14
	음악사	3.51	1.10
작곡	관현악법	4.30	0.91
	현대음악론	3.69	1.14
	전자음악(실용음악)	3.67	1.19
피아노	피아노 교수법	3.89	1.04
	반주법	3.75	0.89
	건반화성	3.59	0.99
성악	덕션	4.45	0.85
	오페라	4.25	1.03
	예술가곡클래스	3.91	1.09
관현악	오케스트라(관악·현악)	4.66	0.79
	실내악	4.38	0.80
	지휘법	3.61	1.07

다음의 <표 3>은 음악 대학 재학생들이 생각하는 현행 교과과정의 전공별 교과과정적합도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높은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연구 결과, 피아노 전공(M=3.13; SD=.81)이 현행 교과과정이 진로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관현악 전공(M=3.51; SD=1.10)은 현행 교과과정이 진로에 가장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전공별 교과과정적합도

전공	평균	N	표준편차
피아노	3.13	86	.81
작곡	2.88	59	1.04
성악	2.71	35	.90
관현악	2.68	59	1.20
합계	2.94	201	.950

다음의 <표 4>은 음악 대학 재학생들이 생각하는 현행 교과과정의 학년별 교과과정적합도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높은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연구 결과, 1학년(M=3.07; SD=.82)이 현행 교과과정이 진로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학년(M=2.79; SD=.94)은 현행 교과과정이 진로에 가장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학년별 교과과정적합도

학년	평균	N	표준편차
1학년	3.07	54	.82
2학년	3.03	37	.92
3학년	2.89	48	1.03
4학년	2.79	62	.99
합계	2.94	201	.94

다음의 <표 5>는 음악 대학 재학생들이 생각하는 예상 진로와 현행 교과과정적합도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높은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표 5>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예상 진로별 교과과정적합도

예상진로	평균	N	표준편차
국내대학원진학	3.17	46	.85
해외유학	3.12	42	.92
프리랜서(레슨)	3.00	42	.99
취업(음악관련)	2.78	51	.94
취업(일반기업)	2.33	12	.78
전문연주자	1.83	6	.98
기타	3.00	2	.00
합계	2.94	201	.95

연구 결과 졸업 후 예상 진로를 국내 대학원 진학이라고 밝힌 음악대학생 ($M=3.17$; $SD=.85$)들이 현행 교과과정이 진로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연주자라고 예상 진로를 밝힌 음악대학생($M=1.83$; $SD=.98$)들은 현행 교과과정이 진로에 가장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6>은 음악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현행 교과과정이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들에 대한 질적 응답을 질적 연구 분석방법의 하나인 코딩작업을 거쳐 각 참가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후, 비슷한 카테고리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결과,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교과과정의 체계성 부족*($n=29$), *과목의 다양성 부족*($n=18$) 등을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한 반면, 실기 수업 부족($n=7$)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학생들이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표 6> **현행 교과과정이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질적응답분류)**

내용	n	%
교과과정의 체계성 부족	29	33
과목의 다양성 부족	18	21
수업의 질/교·강사 관련 문제	13	15
실용적인 과목 부족	10	11
실기 수업 부족	7	9
기타	10	11
합계	87	100

<표 7> **교과과정에 새롭게 개설되었으면 하는 과목들 (질적응답분류)**

과목	N(%)	세부과목
연주 외 이론과목	73(36)	음악사회학, 음악심리학, 음악철학·미학 등
예술경영 관련	42(22)	예술경영, 예술행정, 공연기획, 마케팅 등
음악교육 관련	33(16)	음악교육학, 페다고지
실용음악 관련	24(12)	미디, 실용음악, 레코딩, 재즈화성학 등
실기 관련	20(9)	제3 디션, 오페라, 지휘, 현대음악 등
기타	9(5)	
합계	201(100)	

위의 <표 7>은 음악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교과과정에 새롭게 개설되었으면 하는 과목들에 대한 질적 응답을 질적 연구 분석방법의 하나인 코딩작업을 거쳐 각 참가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후, 비슷한 카테고리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필수 응답 문항이었으며 이 결과,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음악심리학** 또는 **음악 사회학과** 같은 **이론과목**(n=73)들을 가장 개설되었으면 하는 과목으로 지적하였으며, **실기관련과목**(n=20)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학생들이 새롭게 개설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8>은 음악대학생들이 교과과정에 관하여 음악대학에 바라는 사항들에 대한 질적 응답을 질적 연구 분석방법의 하나인 코딩작업을 거쳐 각 참가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후, 비슷한 카테고리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결과,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실용음악관련 과목이나 연주 이외의 세분화된 과목의 개설 등을 통한 **교과과정의 다양화**(n=39)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실제적인 진로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제도**(n=25)를 음악대학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음악대학생들이 교과과정관련 음악대학에 바라는 사항들(질적응답분류)

응답	N(%)	세부응답
교과과정의 다양성 필요	39(45)	연주 외 과목의 증설이 필요, 세분화된 교과과정필요, 실용 교과목 개설
실제적인 취업과 진로 교육	25(29)	실용적 프로그램 필요, 진로 상담의 현실화(멘토링 등), 취업준비제도, 현장연계 등
교육의 질 향상	16(18)	교·강사 수업의 질 향상, 연주 이외 분야 교·강사 확충, 교육 환경의 개선
보다 많은 연주 기회의 제공	7(8)	외부연주 기회 제공, 실기 강화 프로그램 필요, 이론축소 등
합계	87(100)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대학생들을 대상(n=201)으로 본인들이 음악을 대학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음악대학의 교과과정과 졸업 후 진로와의 적합도를 조사하여, 음악대학과 음악전공자들에게 교과과정개발 및 졸업 후 진로지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입학 이전 음악을 전공으로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이 좋아서(흥미)*, *타고난 음악적 재능* 등의 내적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도 학생들 스스로 음악에 흥미를 느끼고 재능을 개발하는 것이 대학 전공으로 음악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선택 요인은 대부분 음악 또는 연주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최진호·정완규, 2009; Gillespie & Hamann, 1999; Hellman, 2008; Thornton & Bergee, 2008). 반면 *취업의 보장*이나 *수입의 보장*과 같은 요소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음악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시점에서 현실적 상황에 대한 직업적 요소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악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진로에 대한 교과과정 적합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학 당시에는 직업적 고려 없이 학생들 스스로 음악에 흥미를 느끼고 재능을 개발하는 것이 좋아서 대학전공으로 음악을 선택했지만, 학년이 올라가고 졸업이 다가올수록 실기 위주의 진로 성향과 직업적 요소에 대한 생각이 현실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전공별 교과과정 적합도에서는 피아노 전공의 교과과정적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곡, 성악, 관현악 전공 순으로 교과과정적합도가 낮아졌다. 이를 분석해 보면, 졸업 후 피아노 전공이 다른 전공에 비해 전공과 관련한 진로를 선택할 폭이 상대적으로 넓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진호, 정완규(2009)의 ‘피아노 교수학 전공 선택요인 분석과 진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피아노 전공자들의 예상 진로가 피아노 교사(개인교습/학원), 대학원 진학, 전문 반주자 등으로 나타난 반면, 음악과 관련 없는 직업은 한명도 지적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다른 전공에 비해 현실적으로 실제 전공을 살려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문연주자를 예상 진로로 지적한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현행 교과과정적합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음악대학의 교과과정은 전문연주자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밝혔듯이, 현행 음악대학 교과과정이 전문연주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의외의 결과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면, 현재 음악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과정에는 문제가 있으며, 전면적인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악대학생들의 진로에 연관된 음악대학 교과과정에 대한 생각과 제안들을 분석해 볼 때, 음악대학생들은 실제적인 진로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과과정의 다양성을 원하고 있으며, 연주 이외에 예술경영과 음악심리학, 그리고 음악교육 및 실용음악 등 졸업 후 실제 진로에 적용할 수 있는 과목들을 음악대학들이 개설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각 음악대학들은 본 연구에서 언급된 실기 이외의 교과과정의 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을 점진적으로 적용시켜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가 졸업생들의 취업률과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음악대학과 음악대학생들에게 교과과정개발 및 졸업 후 진로지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 김경미, 백사인 (2011).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의식 및 진로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효과. **취업진로연구**. 1(2), 19-39.
- 박용두, 김나래 (2012). 대학생용 진로발달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9(2), 133-156.
- 성태제, 시기자 (2010). **연구방법론**. 학지사: 서울.
- 이가원 (2009). 대학의 음악 산업 프로그램 중 음악경영과 음향제작 전공 교과과정 개발. **음악교육공학**. 9, 115-131.
- 이대용, 류동희 외 (2011). 한국대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1(2), 41-68.
- 이승계 (2007). 대학생의 노동경험과 직업선택의 관련성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4(2), 123-141.
- 이에스더 (2008). 실용음악 교육의 동향과 실천적 과제. **음악교육공학**. 7, 133-146.
- 이정애, 최웅용 (2010). 사회인지 진로이론 관점에서의 대학생의 진로목표 추구활동 분석. **상담학연구**. 11(2), 685-699.
- 조선우, 김원명 (1999). 지방 음악대학(학부·학과) 교육과정 개선 및 경영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음악과 민족**. 17, 123-153.
- 최시원 (1983). 한국대학 음악교육의 교과과정문제. **음악연구**. 2(1), 91-100.
- 최진호, 정완규, (2009). 피아노 교수학 전공 선택요인 분석과 졸업 후 진로 조사. **음악교육연구**. 37, 215-244.
- 한국교육통계연구센터 (2012). **취업통계연보** Retrieved February 1, 2013 from <http://cesi.kedi.re.kr/>
- 한선숙 (2009). 대학 무용전공자의 진로문제와 진로성숙의 관계. **예술교육연구**. 7(2), 25-36.
- 한주연 (2012). 문화생산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양고전음악 전공자들의 변화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허은영, 최영섭, 김성중 (2010). **예술분야 일자리 특징 및 인력 정책방향** (KCTC 2010-38).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s;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Gillespie, R., & Hamann, D. L.(1999). Career Choice among String Music Education Students in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 256-278.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ition*, New York: David Mckay.
- Harren, V. A.(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 - 133.
- Herr, E. L., & Cramer, S. H. (1996). *Career guidance and counselling through the life span: systematic Approaches*(5th ed.). NY: Harper Collins.
- Holloway, A. J. (1984). A descriptive analysis of musical experiences, employment patterns, career aspirations, curricular content, and attitudes of doctoral aspirants in music.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Tallahassee).
- Jones, B. D., & Parkes, K. A.(2010). The Motivation of Undergraduate Music Students: The Impact of Identification and Talent Beliefs on Choosing a Career in Music Education. *Journal of Music Teacher Education*, 19(2), 41-56.
- Mathombela, E. N. (1997).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aspirations of high school students in South Afric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 Mortimer, J. T., Zimmer-Gembeck, M. J., Homes, M., & Shanahan, M. J. (2002). The process of occupational decision making : Patterns during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3), 439-465.

- Parkes, K. A., & Jones, B. D.(2011). Students' Motivations for Considering a Career in Music Performance. *Applications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9(2), 20-28.
- Paul, J. H.(2010). Practice and research in career counseling and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9(2), 98-142.
- Savickas, M. L.(2000), "Renovation the psychology of career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The future of career* (pp. 53-6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lbert, E. L.(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ABSTRACT

Career Choice and Curriculum Applicability of Music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Jung, Hwan-Ho · Choi, Jin-H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erceived factors that influenced the career choice and the curriculum applicability toward real world after graduation as music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N=201). The participants indicated that they chose music as the college major because of their affection for music. On the other hand, income and job achievement were perceived as the least influential factors impacting the career choice of music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Regarding the curriculum applicability toward real world after graduation, participants pointed out that they have perceived the matters of job achievement, as they became college seniors. Moreover, music majors who pursue their career as professional performers rated curriculum applicability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music majors. Recommendation and conclusion were provided for music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key words : Career Choice, College Music Majors, Music Education. Curriculum.

투고일: 2013년 2월 28일, 심사(수정): 4월 3일(4월 30일), 게재 확정일: 5월 8일